

대형계열기획보도—백성이야기 (165)

연변대학부속병원 심혈관의학중심 주임 성현무

고향에 뿌리내리고 세계 의학연구 분야에서 명성 떨치다



연변대학부속병원 심혈관의학중심 주임 성현무

따사로운 여름 해살이 환하게 비추는 어느 날, 연변대학부속병원(이하 '연변병원') 심혈관 진료실에서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전문가다운 카리스마를 뽐내고 있었다. 그가 바로 연변병원 심혈관의학중

에서 태어난 성현무는 가난한 농촌 소년이었다. 중학교 시절 학비 마련이 어려워 휴학을 고민할 때 동창들이 십시일반 학비를 모아서 그를 다시 학교로 불러냈다. 이 작은 정이 훗날 '가난한 이들도 평등하게 치료받게 하겠다'는 그의 평생 사명이 되었다.

1984년 연변대학 의학원에 입학한 그는 학부 졸업후 모교에서 연구와 진료를 계속하다가 1992년 모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1999년에는 일본 나고야대학(名古屋大学)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교편을 잡을 기회도 있었지만 성현무는 유수의 해외 유명 병원과 대학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오로지 '조국이 나를 키웠다'는 신념으로 2018년 고향 연변으로 돌아와 연변병원 심장내과 주임의사로 부임했다. 2019년 4월에는 연변대학 의학원 주임의사로 초빙되었다. 또한 현재 길림성과학기술청 '만성 스트레스와 심혈관질환 중점실용성' 및 '길림성 고등학교 황대년식 교원팀(吉林省高校黄大年式教师团队)' 책임자를 맡고 있다.

타고르의 시 "태양이 나무의 그림자를 아무리 멀리 끌어당겨도 나무는 뿌리를 잃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전문가다운 카리스마를 뽐내고 있었다. 그가 바로 연변병원 심혈관의학중

성화를 통해 혈관 재생을 조절하는 새로운 작용 원리를 검증하여 허혈성심혈관질환의 예방치료에 새로운 이론적 근거와 치료 병소를 제공했다.

현재까지 그의 팀은 국가자연과학기금 등 국가급 및 성급 과학연구 과제 20여개를 담당하고 국내외 심혈관 분야의 핵심간행물에 19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8건의 특허를 보유했다. 또한 '장백산국제심혈관포럼'을 4차례나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림상면에서 성현무는 성내 처음으로 광상동맥 개입치료 기술을 도입했는데 이 기술은 연변병원에서 심근경색을 치료하는 핵심기술로 되었다. 그는 연변지역의 고혈압 진료 현황을 세밀하게 연구하면서 고혈압 전문과의 설립을 주도하고 전문진료팀을 구성하여 생활방식 개선과 약물치료를 결합한 치료방안을 탐색해냄으로써 고혈압 환자들에게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했다.

◆ 교육자로서의 사명, 미래의 인재 양성에 최선

성현무는 대학원 교육 교수중에 나타난, 능동적인 국가 봉사전략 의식이 강하지 못하고 원격 연구 경험이 부족하며 국제 시야 협력 의식 양성이 부족한 등 문제를 대상으로, '국

교 황대년식 교원팀 비준을 받았다. 립상면에서는 연이어 길림성 '가장 중요한 학과', '특수 교수진 학과', '일류 학과 A류' 건설 학과, '세계 일류 학과 육성 계획' 설정 건설 학과로 비준받았으며 연속 9년 ESI 세계 랭킹 상위 1%에 진입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바로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연변의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성현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어려웠다. 그러면서 그는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라고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저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라고 희망을 표하기도 했다.

◆ "의사라는 직업은 하루도 쉴새 없지만 환자의 미소가 모든 노력을 값지게 합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성현무의 간절한 소망을 담았다. 해외에서 공부하며 어떤 성과를 거두었든 그의 가장 큰 소망은 고향에 뿌리내리고 고향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었다.

성현무는 연변지역의 높은 고혈압 발병률 상황에 대비해 '아침, 점심, 저녁 혈압을 모두 재고 환자별로 약 복용 시간을 다르게 처방'하기도 하고 특별히 '고혈압 환자 워킹그룹'을 만들어 자신의 휴식시간을 반납하며 환자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주기도 한다. 이 워킹그룹에서 환자들은 언제든지 그에게 질문할 수 있고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환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로 하여금 그의 관심과 따뜻함을 느끼게 했다. 현재 이 워킹그룹은 루게로 2,000여명의 환자에게 봉사를 제공했고 치료 지도의견을 1만회 이상 제기했다.

"의사라는 직업은 하루도 쉴새없지만 환자의 미소가 모든 노력을 값지게 합니다."라고 말하는 성현무. 그는 자신의 실제 행동과 의력으로 생명의 불꽃을 지피고 환자들의 폭넓은 찬사와 존경을 받았다.

연변의 심혈관질환 치료와 연구의 선두자, 조선족 심혈관의학의 대표자로서 성현무는 심혈관질환 연구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며 변강지역 의료 발전의 초석을 다져왔다. 그는 의료, 연구, 교육의 길을 걸으며 조선족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업적을 쌓아왔다. '전국 위생건강부부선진사업단', '전국 모범교원'... 이런 수두룩한 영예는 한 의학자의 전문성과 고향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어우러져 이뤄낸 값진 결과이다.

"연변 심혈관 분야의 의료, 과학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에 맞추어 발전시키고 연변인민들이 최첨단 의료봉사를 향유하게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념원입니다." 성현무는 향후 자신의 일터에서 계속 노력을 기울여 광범한 대중들의 심혈관 건강을 수호하는 데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라고 표했다.

"환자들의 건강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성현무, 오늘도 그는 연구실과 병실을 오가면서 환자들의 심장 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의 희망을 전하며 의료인재 양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변, 나아가 전국 심혈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그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리전기자

회사에서 납부한 양로보험료, 개인계좌에 기입될까?

회사에서 납부한 양로보험료가 개인계좌에 기입될까? 이에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6일 공식 위챗계정을 통해 답변했다.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기본양로보험은 사회통합과 개인계좌의 결합을 실행한다. 용인단위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양로보험 통합기금에 기입하여 기초양

로급, 과도성 양로급 등을 지급함으로써 사회 공평과 공제를 반영한다. 종업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개인계좌에 기입되어 개인계좌 양로급 계산과 지급에 사용되는바 더 많이 납부하면 더 많이 받는 격려 기제를 강조함과 동시에 개인의 권익과 책임을 반영한다.

/인민넷—조문판

공간 류동취업, 양로금은 어디서 수령하는가?

최근 많은 네티즌들이 여러 도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최종 기본양로금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계자는 공간 류동취업 시 어디서 퇴직하고 어디서 퇴직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는 주로 기본양로보험 대우를 신청할 때 양로보험 관계자 호적 소재 성에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상황 1: 양로보험관계자 호적 소재 성에 있을 경우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 기간이 얼마 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호적 소재 성에서 퇴직하고 기본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상황 2: 양로보험관계자 호적 소재 성에 있지 않고 각 보험 가입지

의 납부 기간이 전부 10년 미만인 경우 호적 소재 성에서 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상황 3: 양로보험관계자 호적 소재 성에 있지 않고 여러 가입지의 보험료 납부 기간이 전부 10년이 지났을 경우 마지막으로 납부한 지 10년이 넘었고 립시계좌(납성 만 50세 이상, 녀성 만 40세 이상)이며 비호적지에서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만든 계좌(가 아닌 성이 양로 대우 수령지이다.

이 밖에 성내에서 타지역 류동취업 시 어디에서 퇴직해 양로보험 대우를 수령할지는 주로 각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사회보험 처리기관이나 12333 자문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 CCTV 뉴스

연변, 무상헌혈로 애심장성 구축



14일, 스물두번째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헌혈은 희망을 전달하고 협력하여 생명을 구조하자'를 주제로 한 선전행사가 연길시 시대광장 '헌혈의 집'에서 있었다.

연변주직접자중심혈액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대중에게 과학적인 헌혈 지식을 보급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무상헌혈 대우에 가입하고 재생 가능한 혈액으로 한번뿐인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이번 행사에는 무상헌혈후 '헌혈증'으로 경품 추첨에 참여하기, 헌혈상식 문제 맞추고 선물받기, 헌혈 후 기념사진 찍기 등 다양한 내용이 마련되었으며 연변조선족전통음식협회 회원단위에서 준비한 여러가지 음식과 음료수도 제공되었다.

열기로 가득찬 현장에서 많은 애심인사들이 헌혈에 참여했다. 그중에는 2002년 대학시절부터 무상헌혈을 시작해 지금까지 꾸준히 견지

해온 류언초도 있었는데 그는 지난 20여년간 도합 6,000밀리리터를 헌혈했다.

최근 '전국 무상헌혈 공헌상' 은상을 수상했다는 그는 이날도 단연 첫 사람으로 헌혈하며 소감을 밝혔다. "적당한 량의 헌혈은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저의 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연변주직접자중심혈액소 선전일꾼 조효단은 "현재 우리 주 혈액공급은 매우 긴박한 상황이다. 특히 립상용 혈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무상헌혈의 소중함을 깨닫고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참여가 광범한 대중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된다."고 호소했다.

이날 18명이 도합 5,900밀리리터를 헌혈했다. /오전기자



고향의 의료 수준을 높여준다는 일념으로 연구와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성현무의사(왼쪽 두번째)

심 주임 성현무교수이다. 성현무의 진료실은 매일같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환자들로 북적인다. 그는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로 많은 생명을 구해냈다. 하여 그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로 유명하다.

고혈압전문위원회 및 의료련맹 주임위원, 연변병원 2급 교수, 국무원 정부특수수당 수혜자, 국가급 고급인재, 길림성 A류 인재, 2020년 전국 학술영향력 100강 학자... 수많은 영예 뒤에에는 변강 소수민족지역 의료를 발전시키려는 한 조선족 의사의 뜨거운 열정이 숨겨져 있다.

세계 의학연구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고 고향에 뿌리내리고 헌신의 길을 걸어오면서 성현무는 의력으로 생명의 불꽃을 지피고 고향에 대한 사랑을 의술의 꽃으로 피워가며 큰 사랑과 책임을 실천해가고 있다.

◆ 고향을 가슴에 품은 의학의 길

1966년 연변 안도현 만보진 금광촌

고향으로 돌아온 초심에 대해 성현무는 "물 마실 때 우물 판 사람을 잊지 말아야 하듯이 사람은 고향의 은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변의 심혈관 환자들이 저를 필요로 합니다. 조국과 고향이 저를 키워준 만큼 저는 조국과 고향에 깊은 정과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조국과 고향에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립상기술혁신과 과학연구 성과 전환 경로 탐색

어린시절의 다짐과 고향의 의료 수준을 높여준다는 일념으로 성현무는 연구와 진료에 매진해왔다.

성현무는 '변강 소수민족지역의 심혈관 건강'을 사명으로, 국가 위생건강분야의 주요 수요를 긴밀히 둘러싸고 실질적인 난제에 초점을 맞추어 팀을 인솔해 심혈관질환 립상기술혁신과 과학연구 성과 전환 경로를 탐색하는 데 전념해왔다.

성현무는 국제적으로 처음으로 카텝신 K(组织蛋白酶K)의 Notch1 활

가 자연과학기금 프로젝트 + 성, 부급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엔진으로, 국가급 및 성급 중점전문대, 중점실험실, 교수팀 등 고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외 유명 의과대학과 협력해 연구생 양성 '3년 지원'(三桅托举) 교육시스템을 구축, 연구생들의 창의적 연구 능력과 국제적 시야를 키우는 데 주력함으로써 의학교육의 고품질 발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강유력한 인재 보장과 지역적 지원을 제공했다.

림상의학의 학과 선도자로서 성현무는 교수팀을 인솔하여 선수로 석, 박사 및 박사후 연구원인 등 200여명의 우수한 의학 인재와 후비력량을 양성했다. 그의 지도 아래 립상의학 교육팀은 길림성 우수교육팀으로 선정되었다. 스트레스 및 심혈관질환 연구 교원팀은 길림성 제3차 대학

대형계열기획보도 **백성이야기**



요즘 연길시 조양천진 호원회취재대원은 모란꽃, 작약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 꽃바다를 방불케 한다. 화려한 꽃들과 향긋한 꽃향이 시민과 관광객들을 흡인하며 나들이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꽃바다 속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는 관광객들의 즐거운 모습이다. /연길시당위 선전부

/연길시당위 선전부